

#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and Child-Rearing and School-Aged  
Children's Depression in Low Income Family and Non-Low Income Family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 수 민 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김 경 화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eoung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 of DaeGu

Professor : Kim, Kyong-Hwa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and child-rearing and school-aged children's depression in low income family and non-low income family. The subjects were 357 school-aged children who attended elementary school and who were 5th 176(49.3%) and 6th grade 181(50.7%)(boys were 206(57.7%), girls 151(42.3%)).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enter regression(using SPSS 12.1).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Parents' conflic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depression in low income and non-low income family.
- (2) Parents' conflic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ents' child-rearing in low income and non-low income family.
- (3) Parents' conflict partially exerted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depression, controlled by parents' child-rearing in low income and non-low income family.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s mediation was higher in low-income family than in non-low income family.

---

▲주요어(Key Words) : 부모간 갈등(parents' conflict), 양육행동(child-rearing), 저소득 가정(low income family),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school-aged children's depression)

---

\* 주 저 자 : 민하영 (E-Mail : hymin@cu.ac.kr)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6년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IMF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중간소득층은 줄어든 반면 빈곤층은 10년 전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하였다. 빈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Bornstein, 1997; Brooks-Gunn & Duncan, 1997)을 고려해 볼 때, 우리사회 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양극화적 측면 뿐 아니라 성장하는 아동의 발달 및 복지적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를 유발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은 부모간 갈등을 야기하고 부모간 갈등은 자녀 양육 소홀 및 학대로 이어지고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 저하 및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가져오는 것(민하영·권기남, 2004; 오경자·문경주, 2006; Conger et al., 1997; Conger et al., 1992; Raver et al., 2007)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빈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고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성장 환경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보육비 지원 및 생활보조금 지급,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정책 등 빈곤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노력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보다 빈곤으로 인한 가족간 심리적 갈등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 가정의 심리적 가족과정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노력 또한 빈곤의 구조적 해결 노력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빈곤한 저소득 아동의 심리적 가족과정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부모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부와 모는 부부간 관계와 부모-자녀간 관계를 기반으로 심리적 가족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빈곤 가정의 심리적 가족과정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부모의 부부간 갈등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성향이나 문제행동 등 학령기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권영옥·이정덕, 1999; 정문자·전연진, 2005; Davies & Forman, 2002) 및 부모의 의사소통 및 지지 등 부모와의 관계가 우울 성향이나 자기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김애경, 2003; 이영미·민하영, 2004; Hill et al., 2003)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간 관계인 부부갈등이나 부모 자녀관계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소득 등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문

제를 지적함으로써, 그 연구결과를 일반 가정에 비해 취약하고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한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가족과정의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간 갈등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심리정서적 부적응인 우울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반 가정 아동과 대비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 가정 아동과 다른 저소득 가정 아동의 발달 특성을 탐색하거나 규명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심리적 가족과정 강화 프로그램 개발 시 우선순위 항목이나 역점 사안을 결정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실용적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부부간 갈등은 아동에게 불안, 위협, 긴장,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아동의 환경 적응에 위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영옥·이정덕, 1999; 김애경, 2003; 김정란, 2005; Cummings & Davies, 2002, 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3; Jenkins et al., 2005).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외현적 또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적(정문자·전연진, 2005; Cummings et al., 2006; Davies & Forman, 2002)되기도 하며 공격성(Grych & Fincham, 1990; Patterson & Zill, 1986)이나 비행행동(Buehler & Gerard, 2002)의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이는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부정적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간 갈등보다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보다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는다는 spillover(파급) 가설이 설득력 있게 검증되고 있다. spillover(파급)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정소희, 2007; Buehler & Gerard, 2002; Fauber et al., 1990)에서는 부모의 갈등이 온정적이고 양육적인 양육행동을 낮추고, 통제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촉발함으로써 아동의 부적응 발달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아동의 부적응 발달행동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영향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spillover(파급) 가설은 부모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가정에서 보다 설득력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경제 문제는 부모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으며, 증폭된 부모간 갈등은 일반 가정에 비해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가용 자원이 부족한 부모에게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보다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이며 또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연성은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저소득 빈곤 아동의 심리정서적 능력이 부모간 갈등과 부모

의 양육행동에 의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빈곤 아동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빈곤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선행 연구(오경자·문경주, 2006; Conger et al., 1997; Conger et al., 1992)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우울 등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모간 갈등의 영향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 과정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남, 2004; Fauber et al., 1990)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빈곤 아동만의 특성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빈곤 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일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는 일반 가정 아동과 차이날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 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이 부모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우울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으로 나누어 접근해보으로써, 일반 가정 아동과 구분될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 발달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부모간 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이라는 가족의 심리적 과정과 연결시켜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울성향은 학령기 아동의 발달 과정 중 경계해야 할 요인이기 때문이다. 발달상 경계되어야 할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은 일반적으로 상실 사건 이후 발생(Finally-Jones & Brown, 1981)하는 정서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성향 발생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헤어짐이나 이혼 가능성의 위협이 발생하기 쉬운 부모간 갈등은 아동에게 부모 상실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높임으로써 우울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온정적이지 못하고 반응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은 애착에 대한 상실을 경험케 함으로써 아동의 우울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 가정 아동과 달리 경제적 박탈이라는 상실 상태에 이미 놓여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간 갈등이나 부모의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은 일반 가정 아동과 다른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일반 가정 아동과 다를 수 있는 저소득 아동의 우울성향 발달 특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을 각각 대상 집단으로 하여, 각 집단 내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이 부모간 갈등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각각 매개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서 매개 과정에서 일반 가정과 저소득 가정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해 매개 효과 검증 조건<sup>1)</sup>을 제시한 Baron과 Kenny(1986)의 가설 설정

방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문제 1>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3-1]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 통제 시, 부모의 양육행동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양육행동 통제 시,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층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현 사회적 상황에서, 저소득 빈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심리적 가족과정 강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 중재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저소득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 자신의 우울성향간 관계를 규명하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심리적 가족과정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계획하는데 유용한 자료나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균형된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내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알려진 A구와 B구 소재 4개 초등학교를 유의표집한 후 5, 6학년 재학 중인 357명을 연구대상[5학년 176명(49.3%), 6학년 181명(50.7%), 남자 206명(57.7%), 여자 151명(42.3%)]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2006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4층 이하에 제공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

토대로 도출한 것이다. Baron과 Kenny(1986)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변인의 매개 효과가 검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독립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효과는 매개 변인이 통제될 때,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1) 연구문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조건을

시 4층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 250만원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아동을 저소득 가정(182명 51%)과 일반 가정 아동(175명 49%)으로 구분하였다. 저소득 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조금 더 자료 수집된 것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내에서 자료를 유의표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 학력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경우 고졸이하는 108명(59.2%), 대졸이상은 69명(37.9%), 결측치 5명(2.7%)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 142명(77.9%), 대졸이상 39명(21.4%), 결측치 1명(0.5%)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0대 20명(11.5%), 40대 137명(75.3%), 50대 5명(2.7%), 결측치 19명(10.4%)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30대 82명(45.1%), 40대 91명(50.0%), 50대 1명(0.5%), 결측치 8명(4.4%)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의 경우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하 43명(24.6%), 대졸이상은 122명(69.7%), 결측치 10명(5.7%)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 79명(45.2%), 대졸이상 87명(49.7%), 결측치 9명(5.1%)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0대 17명(9.7%), 40대 133명(76.0%), 50대 8명(4.6%), 결측치 17명(9.7%)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30대 58명(33.1%), 40대 106명(60.6%), 50대 2명(1.1%), 결측치 9명(5.2%)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 1) 부모간 갈등 척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등(1992)이 개발한 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PIC)를 기초로 제작된 권영욱과 이정덕(1997)의 한국판 CPIC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티격태격하거나 다투신다',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와 불평을 서로서에게 자주 하신다' 등 부모갈등의 빈도와 강도, 해결, 위협에 관한 문항 등 총 20개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로 나타났으며 20에서 60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평균은 29.48(6.89)로 나왔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이 심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온정과 통제 양육행동으로 구성된 공인숙(1989)의 척도 중 온정적 양육행동 문항을 토대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은 함께 의논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사고를 치면 내말을 듣기도 전에 야단부터 치신다' 등의 1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정말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로 나타났으며 15에서 60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평균은 49.16(6.37)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 척도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5)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도로,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 정서, 자기 비하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된 증세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다(2점)'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6문항으로 구성된 CDI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77$ 로 나타났으며 0에서 32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평균은 8.22(4.14)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대구시 소재 4개 초등학교 5, 6학년 41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하였다. 담임 교사는 질문지 내용을 토대로, 질문지 배포일 전에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해 오도록 지도하였다. 질문지 응답은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응답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가족 구조의 문제로 부모간 갈등을 보고할 수 없거나 부실 기재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357명의 자료이며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t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 단순 회귀분석 및 표준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alpha<.05$ 에서 자료 결과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분석 전에 부모간 갈등,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관한 소득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 가정 아동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부모간 갈등( $t=1.99, p<.05$ )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t=-2.41, p<.05$ )을 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으며, 우울성향( $t=1.97, p<.05$ )을 보다 많이 보고

<표 1> 소득에 따른 부모간 갈등, 양육행동, 우울성향간 평균 차이

| 소득구분        | 부모간 갈등      | 양육행동        | 우울성향       |
|-------------|-------------|-------------|------------|
| 저소득 가정(176) | 30.20(7.07) | 48.35(6.79) | 8.65(4.45) |
| 일반 가정(181)  | 28.72(6.63) | 50.00(5.79) | 7.78(3.74) |
| t값          | 1.99*       | -2.41*      | 1.97*      |

주) \*p<.05

<표 2>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 양육행동, 우울성향간 상관관계

| 변 인    | 저소득 가정   |          |      | 일반 가정    |          |      |
|--------|----------|----------|------|----------|----------|------|
|        | 부모간 갈등   | 양육행동     | 우울성향 | 부모간 갈등   | 양육행동     | 우울성향 |
| 부모간 갈등 | 1        |          |      | 1        |          |      |
| 양육행동   | -.402*** |          |      | -.323*** |          |      |
| 우울성향   | .351***  | -.461*** | 1    | .323***  | -.399*** | 1    |

주) \*\*\*p<.001

<표 3>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과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간 관계

| 변 인    | 저소득 가정<br>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 |        |         |                | 일반 가정<br>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 |        |         |                |
|--------|------------------------|--------|---------|----------------|-----------------------|--------|---------|----------------|
|        | B(SE)                  | β      | F값      | R <sup>2</sup> | B(SE)                 | β      | F값      | R <sup>2</sup> |
| 상 수    | 1.94(1.51)             |        | 24.18   | .12            | 2.58(1.31)            |        | 16.59   | .10            |
| 부모간 갈등 | .22( .05)              | .34*** | (1,155) |                | .18( .04)             | .32*** | (1,151) |                |

주) \*\*\*p<.001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 대한 연구문제 분석 전에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부모간 갈등과 부모의 양육행동간 관계( $r=-.402, p<.001$ ), 부모간 갈등과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간 관계( $r=.351, p<.001$ ),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간 관계( $r=-.461, p<.001$ )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문제 1>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과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간 관계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갈등의 설명력은 저소득 가정 및 일반 가정 모두 10% 내외의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부모갈등과 학령기 우울성향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부모갈등이 클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문제 1>의 결과는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간 관계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독립변인인 부모간 갈등과 매개 변인인 양육행동간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간 갈등은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모두에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간 갈등이 높을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보다 온정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설명력은 일반 가정 아동( $R^2=.10$ )에 비해 저소득 가정 아동( $R^2=.16$ )에게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간 갈등이 높아질 때 일반 가정보다 저소득 가정에서 보다 온정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조건인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t;표 4&gt;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간 관계

| 변인     | 저소득 가정의 양육행동 |         |         |                | 일반 가정의 양육행동 |         |         |                |
|--------|--------------|---------|---------|----------------|-------------|---------|---------|----------------|
|        | B(SE)        | $\beta$ | F값      | R <sup>2</sup> | B(SE)       | $\beta$ | F값      | R <sup>2</sup> |
| 상수     | 59.91(2.13)  |         | 31.65   | .16            | 58.10(1.95) |         | 18.20   | .10            |
| 부모간 갈등 | -.39(.07)    | -.40*** | (1,164) |                | -.28(.07)   | -.32*** | (1,156) |                |

주) \*\*\* $p < .001$

&lt;표 5&gt;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 및 양육행동의 표준적 중회귀분석

| 상수     | 저소득 가정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 |         |         |                | 일반 가정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 |         |         |                |
|--------|---------------------|---------|---------|----------------|--------------------|---------|---------|----------------|
|        | B(SE)               | $\beta$ | F값      | R <sup>2</sup> | B(SE)              | $\beta$ | F값      | R <sup>2</sup> |
| 상수     | 19.61(3.43)         |         | 27.99   | .27            | 16.08(3.14)        |         | 20.31   | .21            |
| 부모간 갈등 | .11(.05)            | .17*    | (2,154) |                | .12(.04)           | .21***  | (2,150) |                |
| 양육행동   | -.30(.05)           | -.42**  |         |                | -.23(.05)          | -.36*** |         |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연구문제 3>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간 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간 관계

독립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종속변인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는 매개변인이 통제될 때,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3번째 조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간 갈등(독립변인)과 양육행동(매개변인)을 중회귀분석에서 요구하는 2개의 독립변인으로 하여 표준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적 중회귀분석은 투입된 독립변인의 효과를 상호 각각 통제하기 때문에(양병화, 2002), <연구문제> [3-1]의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의 영향력과, <연구문제> [3-2]의 매개변인 통제 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은 독립변인인 부모간 갈등을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행동(저소득 가정:  $\beta = -.42$ ,  $p < .01$ , 일반 가정:  $\beta = -.36$ ,  $p < .001$ )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인인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독립변인인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은 매개변인인 양육행동 통제 시 영향력이 사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은 매개변인 통제 시 <표 3>에 제시된 영향력에 비해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양육행동을 통제할 경우 설명력이  $\beta = .34$ 에서  $\beta = .17$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 역시 양육행동을 통제할 경우 부모간 갈등

의 설명력이  $\beta = .32$ 에서  $\beta = .21$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유의미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 설명력이 줄어드는 것은 저소득 가정이나 일반 가정 모두,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이 양육행동에 의해 완전 매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3번째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았으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반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이 부모의 양육행동 통제 시 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문제 3>의 결과는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 외에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은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일반 아동의 우울성향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대구시 소재 저소득 밀집 지역의 4개 초등학교 5, 6학년 357명을 연구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을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설명력 역시 저소득 가정 12%, 일반

가정 1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모간 갈등과 우울성향 사이에 나타난 정적인 관계는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 특히 행동장애나 외현화된 병리적 증후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설명변인이라고 지적인 선행연구의 결과(이경님, 2004; 정문자·전연진, 2005; Cummings & Davies, 2002; Grych & Fincham, 1990; Jenkins et al. 2005)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것은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모두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우울성향을 설명하는 양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간 갈등이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의 우울성향을 발달시키는 위험 요인임을 분명히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모간 갈등이 소득 수준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 차이를 설명하는데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의 부모 양육행동은 부모간 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부모 양육행동이 부모간 갈등과 관련있다는 연구결과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며 무관심하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오경자·문경주, 2006; 정소희, 2007; Buehler et al, 2002; Fauber et al, 199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저소득 가정의 부모 양육행동( $R^2=.16$ )은 일반 가정의 부모 양육행동( $R^2=.10$ )에 비해 부모간 갈등에 좀 더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가정 부모보다 저소득 가정 부모가 부모갈등 시,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더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등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 발달에 보호적 요인으로 기능하지만, 부모의 통제적이며 일관되지 않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 증후를 강화시킨다는 선행 연구(Dadds et al., 1992; Kaslow et al., 1994)를 고려해 볼 때, 일반 가정에 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간 갈등에 의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소득 가정의 심리적 과정 특성은 아동의 우울성향 발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려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은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 받으나,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간 갈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아동의 부적응이 부모간 갈등에 의한 직접적 이유보다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양육행동에 의해 보다 설명될 수 있다는 spillover(파급) 가설(정소희, 2007; Buehler & Gerard, 2002; Crockenberg & Covey, 1991)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은 spillover(파급) 가설의 지지 여부보다 부모간 갈등에 의한 spillover(파급)가 일반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좀 더 많이 매개되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설명력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할 경우  $\beta = .34$ 에서  $\beta = .17$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와 <표 4> 참조). 이러한 감소는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설명력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할 경우  $\beta = .32$ 에서  $\beta = .21$ 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표 2>와 <표 4> 참조). 이는 일반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에서 부모간 갈등에 의한 아동의 우울성향이 부모의 양육행동 중재 활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배경 등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Hill et al., 2003)의 결과처럼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일반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에서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에서 경계요인이라 할 수 있는 우울성향을 가족의 심리적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부관계인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인 양육행동에서 살펴본 이 연구는 일반 가정 아동과 다를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 발달 특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노력한 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은 일반 가정 아동과 같이 부모간 갈등에 의해 영향받고,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부분 매개되지만, 부모간 갈등에 의한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일반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에서 좀 더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일반 가정과 구분되는 저소득 가정의 특성을 밝히려 노력한 점은 연구대상 표집의 지역적 한계 및 저소득 밀집 지역내 유의표집이라는 연구의 한계점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와 모로 구분짓지 않고 자료수집 했다는 연구방법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의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분석 이전에 살펴 본 <표 1>의 내용처럼, 저소득 가정 아동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부모간 갈등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소득 가정 아동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아동 자신의 우울성향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IMF 이후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이 집중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부모 교육과 부모 훈련 기회가 빈곤 가정을 위한 사회적 중재 프로그램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접수 일 : 2007년 08월 30일
- 심사 일 : 2007년 10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3일

### 【참 고 문 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옥 ·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8.
- 권영옥 ·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0(3)**, 351-372.
- 김정란(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민하영 ·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보건사회연구원(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양병화(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오경자 · 문경주(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59-76.
- 이경남(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영미 · 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정문자 ·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문자 · 전연진(2005).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및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과 이들간의 인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9)**, 161-176.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 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조옥자 · 현온강(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rnstein, R. F.(1997).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in the DSM-IV and beyond.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4**, 175-187.
- Brooks-Gunn, J. & Duncan, G. J.(1997)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 *Future of Children*, **7**, 55-71.
- Buehler, C., & Gerard, J.(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78-92.
-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H.(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pp. 288-310).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rockenberg, S. L., & Covey, S.(1991). Marital Conflict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Children. In D. Cicchetti & S. Toth. Rochester(Eds), *Models and Integrations, vol. 3 of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Cummings, E. M., & Davies, P. T.(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31- 63.
- Cummings, E. M., Schermerhorn, A. C., Davies, P. T., Goeke-Morey, M .C., & Cummings, J. S.(2006). Interparental discord and child adjustment: Prospective investigations of emotional security as an explanatory mechanism. *Child Development*, **77**, 132-152.
- Dadds, M. R., Sanders, M. R., Morrison, M., & Rebetz, M.(1992). Childhood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I. An analysis of family interaction patterns in the h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505-513
- Davies, P. T., & Cumming,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



- 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es, P. T. & Forman, E. M.(2002). Children's patterns of preserving emotional security in the interparental subsystem. *Child Development*, 73, 1880-1903.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inlay-Jones, R. & Brown, G. W.(1981). Types of stressful life event and the onset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Psychological Medicine*, 11, 803-815.
- Grych, J. H., & Fincham, R.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receptive: The children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Hill, N. E., Bush, K. R., & Roosa, M. W.(2003). Parenting and family socialization strategies and children's mental health: Low-income Mexican American and Euro American mothers an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 189-204..
- Kaslow, N. J., Deering, C. G. R., & Racusin, G.(1994). Depres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 39-59.
-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Psychopharmacological Bulletin*, 21, 995-998.
- Jenkins, J., Simpson, A., Dunn, J., Rasbash, J., & O'Connor, T. G.(2005). Mutual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hared and Nonshared Family Risks. *Child Development*, 76(1), 24-39.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aver, C. C, Gershoff, E. T. & Aber, J. L.(2007). Testing Equivalence of Mediating Models of Income, Parenting, and School Readiness for White, Black, and Hispanic Children in a National Sample. *Child Development*, 78(1), 96-115.